

스포츠 동아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sportsdonga.com 10판

1위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2년 연속 1위

남수구 최종전서 첫 승...“이젠 도쿄 가자!” ▶2면



최지만 등 프리미어12 1차예비엔트리 발표 ▶3면



‘3경기연속골’ 중국 뱀소년 김신욱 인터뷰 ▶6면



한국스타 높아진 위상...할리우드행 활짝 ▶11면



어느덧 연기인생 11년 ‘잘해야 한다’ 압박 벗고 여유롭게 나의 길 걷겠다

Cool Interview ▶▶

소녀시대를 넘어 영화주연으로 우뚝 선
윤아



2007년 18살의 나이에 그룹 소녀시대로 데뷔한 윤아. 영화 ‘엑시트’로 오랫동안 스크린 주역의 자리를 새롭게 꿰찬 그녀는 20대 청춘을 보내며 “하고 싶은 걸 하자”는 마음을 여전히 버리지 않는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18세 소시 데뷔 많은 걸 얻고 원 없이 활동 학교 방송반 로망이었는데 못해 아쉬워 재난영화 ‘엑시트’는 잔네 나는 생존기 첫 주연 기쁨? 영화속 내 얼굴 낯설어요

폭염주의보의 날씨만큼 여름 극장가의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연중 최대 성수기로 통하는 여름 시장을 노리는 대작 영화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송강호, 유해진처럼 티켓파워가 검증된 배우들이 터를 잡은 곳에 ‘새 얼굴’이 출사표를 던졌다. 연기자 윤아(29)이다.

결그룹 소녀시대로 10년간 가요계 정상의 자리를 지킨 ‘아이돌’이자, 일본 등 아시아에서 한류의 인기를 주도한 ‘스타’ 윤아가 첫 주연영화 ‘엑시트’ (감독 이상근·제작 외유내강)로 극장 빅시즌에 출격한다. “며칠 전 영화관에 가서 제 얼굴이 나온 포스터가 크게 걸린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어리둥절해하는 그녀는 “도대체 얼마만큼 관객을 모아야 영화가 흥행하는 건지 그 기준도 잘 모르겠다”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소녀시대로 원 없이 활동, 20대 알찬 시간”

윤아는 2년 전 현빈·유해진과 함께한 영화 ‘공조’로 스크린에 데뷔했다. 비중이 적은 조연이었지만 뜻밖의 코미디 연기로 감초 역할을 해내며 이전 ‘예쁜 윤아’의 이미지를 넘어 새로운 매력을 선사했다. 드라마에서는 늘 주연이었지만 대부분 청순 가련형의 인물이었던 탓에 ‘공조’ 속 반전의 이미지에 더 큰 호평이 이어졌다. 자연히 다양한 영화의 출연 제안을 받았고, ‘엑시트’를 만났다.

영화는 도시에 담긴 유독가스 테러를 온 몸으로 견디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두 남녀의 이야기다. 윤아는 눈물 콧물 속 빼는 처절한 상황의 한 복판에 놓인다. 극중 의상도 유니폼 한 벌 뿐이다. 가스를 막기 위해 재활용 비닐봉지로 온 몸을 휘감고 달리기도 한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의식을 많이 했어요. 소녀시대 때는 콘셉트에 맞춰 헤어나 메이크업을 매번 바꾸는 재미도 있었고요. 이번 영화에서는 아무 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편했어요. 하하! 남들이 저한테 원하는 모습보다 이제 제가 보이고 싶은 모습에 주력하고 싶거든요.”

윤아는 ‘공조’를 통해 얻은 자신감 덕분에 “하고

싶은 걸 하자”는 마음이 단단해졌다고 말했다.

“18살에 소녀시대로 데뷔해 20대를 보냈잖아요. 좋은 시절을 겪은 덕분에 지금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대를 너무 바쁘게 지내다보니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이 바로 저를 돌아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2면으로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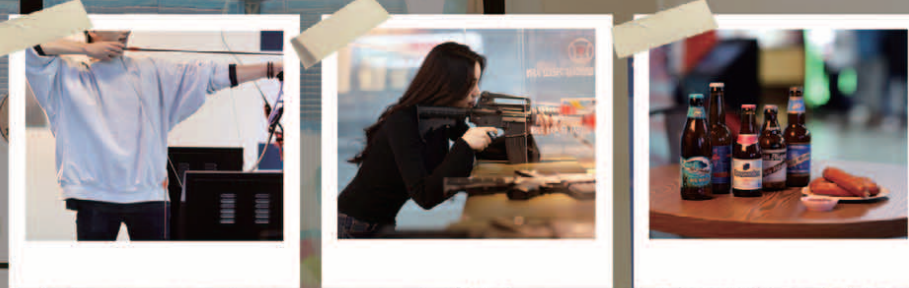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윤아

▲1990년 5월30일생 ▲2007년 그룹 소녀시대 데뷔 ▲2008년 KBS 1TV 일일드라마 ‘너는 내 운명’ 주연·연기대상 신인상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Gee’ ‘훗’ ‘oh!’ 등 히트곡 ▲2012년 KBS 2TV 드라마 ‘사랑비’ 및 ‘총리와 나’, MBC ‘왕은 사랑한다’ 등 주연 ▲2015년 고액 기부자 모임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2017년 영화 ‘공조’로 스크린 데뷔

[신개념 실내스포츠 펍(Pub) 카페]

힘든거말고,
레츠팟매장
차려 볼까?
엄청 쉽대!



- ✓ 높은 객단가, 낮은 인건비
상당히 높은 수익성 60% 이상
- ✓ 알바들 사이에서 일하기 즐겁기로 소문난
운영이 아주 쉬운 아이템
- ✓ 게임기기 렌탈 창업 시스템 지원
저비용 창업시스템
- ✓ 게임기기 개별과금 시스템 적용
현금 매출 비중 25% 이상
- ✓ 향후 20년 사회 트렌드 주도층이 찾는
밀레니얼 세대 트렌드 아이템

NAVER

레츠팟

www.letsport.co.kr

제대로 놀아보자! 레츠팟
Letspot

지역본부
모집 중!

창업 문의
1522-4750